

## 써밋 (창세기 37:1-11)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당연히 기도 중요하다. 언약은 있는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은혜가 없으면 언약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기도도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도는 언약 자체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거 지속되면 흑암세력 무너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반드시 치유된다. 경제도 영적 문제이다. 하나님은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고 먼저 언약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다. 인생도 영적 문제이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 어디가서 귀신에게 빌어서 해결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었으니 너는 이 답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서밋이다. 요셉은 서밋이었다. 자주 메시지에서 듣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되겠는가? 간단하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면 서밋이 된다.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서밋이 안된다.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은 서밋이 된다. 지금 서밋 아닌 것 같아도 서밋이 되게 되어 있다. 언약만 잡으면, 이유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러면 그것은 너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답으로 잡았냐는 것이다. 잡은 사람은 서밋된다. 역사 일어난다. 흑암 세력 반드시 무너지고 문제가 바뀌어 역전된다. 문제가 안오는게 아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문제를 줘도 역전되어 버린다. 그러니 사단이 환장한다. 그것이 언약이다. 그것도 한번만 그렇게 아니라 매번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미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잡은 언약이 성취되고 문이 열린다. 오늘 잡으면 내일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인생의 문도, 복음의 문도,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된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야 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근본 언약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와 예배에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 힘은 언약에 있지 우리의 기도에 있지 않다. 영적인 힘이 나오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어지는 기도나 예배는 종교라고 보면 된다. 언약이 없는 기도와 예배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껍데기라는 것이다. 껍데기를 잡고 있으면 뭐하겠는가? 이런 기도는 아무런 소용없다. 완전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힘이 없는 것이다. 응답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왔다갔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나쁜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언약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백을 해도 잘 안될 수도 있다. 입에서는 되는데 마음에서는 안 잡힐수가 있다.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날 마음에 들어와서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나에게 느껴지게 된다.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 각자 다 이유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힘은 언약을 누리고 언약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 지는 것 원하지 않는다. 승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승리하셨다. 그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원치 않는다. 그 고난을 넘어서고 그것을 박살내고 증인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약을 잡고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언약으로 살고 그 언약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언약의 정확한 예배가 백성중에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보면 살아나고 승리했다. 기드온은 군사가 300명 뿐이고 적군은 메뚜기떼같이 많았다. 그러나 승리했다.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이 조그마한 유대 쳐들어 왔는데 하루 저녁에 다 죽고 말았다. 왕 한명 살았는데, 자기 동네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죽였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만일 니가 이 언약을 잡고 내 앞에 기도하면 니 적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니 적들의 왕들도

죽여버린다는 메시지이다. 일단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왕도 죽었고 그것도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메시지인가! 흥해도 마찬가지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것들은 계속 따라온다. 그래서 물에 빠트려 다 죽인 것이다. 그것이 그날 저녁 언약의 피를 언약으로 잡은 자의 권세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기록을 꼭 기록해놔야 한다. 이것을 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언약이 되기 바란다.

### 1. 개인 언약

오늘은 잘 아는데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다. 야곱의 열한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비밀을 요셉만 알게끔 하신 것이다. 아무리 머리 뛰어나고 술객이어서 소용없다. 요셉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꼼짝마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왜 기록했겠나? 내가 이 요셉을 통해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이다. 우리도 이 메시지를 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에게는 개인 언약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과 연결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이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다. 하늘의 별과 달이 요셉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요셉이 14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요셉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7년 풍년, 7년 흉년은 요셉만 알고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그림이, 이 꿈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언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셉에게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라고...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요셉이 가슴에 박힌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언약되고 기도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거기에 꽂힌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으면 누구든지 서밋된다.

자기에는 사명이고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천명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문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개인 언약이 당연히 정시기도 될 것이다. 결국 24시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삶이 당연히 여기에 이끌려 갈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요셉이 받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개인 언약이 요셉의 기도가 되어 24시간 누려졌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다 차츰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당연히 언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 정복하고 문제 해결되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노예 되도 상관 없다. 감옥가도 상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막을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역전 다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권세이다. 약속의 말씀이 권세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 역전 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내게들여와 언약이 되어지면 역전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미국을 살려야 하고 남미까지 가야 한다고 언약이 되면 역전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평생 렘넌트 운동하고 다민족 운동하겠습니다.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단이 역사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문이 될 것이다. 아마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사단은 환장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개인 언약이다.

개인에게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천명이다. 요셉은 이것을 꿈으로 받았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향하여 살아갈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유도 없고 답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방황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방향이나 이유가 없다면 방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은 힘이다. 능력이고 무기이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쓰는 무기가 바로 사명이다. 근본 무기는 그리스도이다.

그 근본 무기 안에서 사단과 싸우는 구체적인 것이 그리스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이겨버린 것이다. 그러면 정복한 것이다. 그래서 사명이 무기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 고민이 있다. 깊은 기도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림이 약하다. 그래서 영적 승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깊은 기도를 할수 있을까 사실은 늘 고민이다. 개인 언약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자꾸 깊어지게 되어 있다. 언약은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언약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고 내용이다. 내가 기도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기도이다. 그것은 근본 기도가 아니다. 가장 근본은 언약이 기도이다. 개인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다른 기도도 하겠지만 이 언약이 자기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중심, 내 기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자연적으로 그 언약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전쟁하고 도전하게 된다. 이렇게 내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인 언약이다. 요셉은 이런 언약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것이 달란트이다. 너는 이것으로 살아가라. 너는 이것으로 전쟁하라. 너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볼 것이다. 이것이 개인 언약이다. 요셉은 당연히 이것이 자기의 평생 기도제목이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자기의 기도제목이고 삶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있을 줄 믿는다. 이런 언약을 주시도록 계획하고 기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의 인생에대한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도였다. 당연히 요셉인생의 핵심 내용이 된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란다. 깊이 그리스도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승리하고 역전될 것이다. 이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란다.

## 2. 근본 언약

이런 개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근본 언약을 먼저 알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근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었고 요셉도 그랬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요셉의 동생도 있지 않느냐? 베냐민. 베냐민은 더 노년에 얻었다. 그리고 베냐민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고 죽었다. 더 불쌍하다. 만일 육신적인 것이 원인이라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야곱은 성격을 보면 읽어보면 영적인 것이라면 옆이 안 보이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사람이었다. 아마 요셉에게 이런 영적이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더 불쌍한 베냐민이 눈에 보이는게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는 요셉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히니 형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 것이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을 것이다. 요셉은 아마 말씀듣기 좋아하고 영적으로 뭔가 통했을 것이다. 야곱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것 외에는 소용없다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니 야곱이 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자기에게 온 역사 이야기를 늘 요셉에게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다. 아마 요셉은 야곱이 들려주는 창세기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갈테니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당부했다. 이 말은 이제 요셉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내용이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터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있었다. 앞으로 세월이 많이 남았다. 그래도 믿고 있었고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을 것이다. 당연히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았을 것이다. 자기 증조부 아브라함 이야기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요셉은 근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늘 듣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각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마음에서 누러지고 마음에서 기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날 요셉에게 꿈을 껴서 메세지를 준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 근본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개인 언약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 언약의 목표가 근본 언약이기 때문이다. 근본 언약은 이 현장에 전달하여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본 언약과 관계 없는 사람에게 왜 개인 언약을 주겠는가? 줘도 모른다. 필요도 없고. 개인 언약은 사명이고 사명의 내용이 근본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근본 언약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언약에 대한 이해와 누림이 깊어져야 한다. 거기에 집중해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날 우리에게 개인 언약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혹, 개인 언약을 못 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본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많은 응답 받을수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전도문 열리고 제자도 세우고 다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언약 안에만 있어도 굉장한 의미있는 삶 살수 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근본 언약을 매일 누리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이다. 힘은 근본 언약,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역전도, 응답도 여기에 있다. 이것을 안하고 원망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하면 안된다. 속은 것이다. 어떤 때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대체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 된줄 알고 멈춰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안으로 딱 들어가야 한다. 정말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잡아야 한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정복하는 인생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인생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안되는가? 근본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서 그렇다. 이유는 딱 하나다. 답 주신 것이 하나다. 그리스도로 모은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내 개인 언약이 들어오면 진짜 큰 인생 사는 것이다. 근본 언약만 가지고도 의미있는 인생 살수 있다. 거기에 하나 더 주시면, 진짜 한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사명,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시대적인 인생을 살았다. 성경의 결론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 다 시대적인 작품이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수도 있고 사단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 원망할 필요 없다. 사단은 우리하고 이미 관계 없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는 헤어졌다. 근본적으로 갈라선 것이다. 지금은 같이 있을래야 같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언약 딱 잡아야 한다. 언약 잡으면 사단은 필요 없다. 역사해도 상관 없다.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 될 것이다. 그것이 근본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언약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근본 그리스도를 누림과 함께 그 근본 언약이 내 기도가 된다.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늘 고백하고 그것을 더 하고 싶어 진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싶고, 이것만이 의미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것을 위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던지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개인 언약이다.

말씀을 정리하면, 근본 언약을 누리는 것이 뭐니뭐니 해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 언약도 이 근본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본 언약을 누리고 거기에 답이 난 사람에게 개인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 언약이 현장에서 근본 언약을 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내게 개인 언약이 있으면 인생과 기도가 많이 달라진다. 인생도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진다. 그리고 드디어 답안자가 되고 세상 위에 선 자가 된다. 세상을 넘어가는 것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